

■ 특특뉴스

인천공항, 고객경험인증 4단계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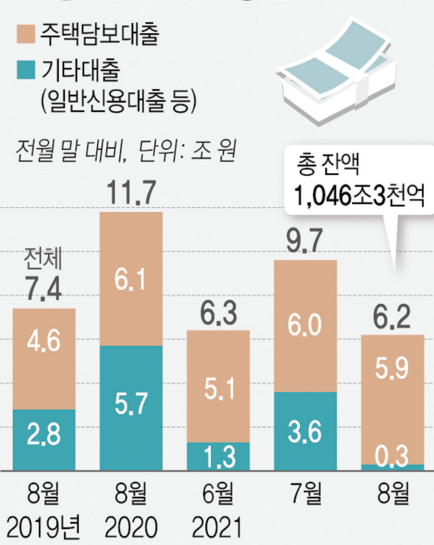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 글로벌 씨앗'에서 고객경험인증제 4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객경험인증제는 ACI가 2019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공항의 고객 이해, 전략, 서비스 혁신 등 8개 영역을 평가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곳, 유럽 10곳, 미주 14곳 등 46개 공항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공항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는 서비스 가치 제공 노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 그래픽 경제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저축은행 상반기 가계대출 14% ↑

저축은행도 상반기 대출 확대로 당기와 수익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작년 말보다 13.4%(10조4,000억원) 증가한 88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14.0%(4조4,000억원) 불었고,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13.1%(5조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인 연간 21% 증가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할 상태다.

‘광주형 일자리’ GGM 15일 양산 돌입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23년만 자동차 공장 완공
연 10만대 기준 추가 채용
사회적 임금 복지는 과제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첫 적용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같은 해 12월 공장 착공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내딛는 걸음마다 새 역사 쓴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기획, 설계, 협약, 완공을 거쳐 이뤄지는 자동차 양산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의 모든 과정을 완결하는 성과라고 광주시는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비용 저효율이란 국내 제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노동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기업에는 적절한 수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전

국 최초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년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완공 등 역사를 썼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 성원, 지자체와 노동계 합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등은 현실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극복했다.

◇내년 7만대 양산 목표…친환경차 생산 채비
GGM은 연말까지 1만2,000대, 내년 부터는 7만대 이상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은 연 10만대 생산 규모를 갖출 것이며 20만대 규모로 증설이 가능하다.

GGM 공장은 친환경화, 디지털화, 유연화라는 3대 콘셉트로 건립됐으며 현재 라인에서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공장이 있는 빛그린 산단에는 국내 유일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는 2대 주주인 현대차가 개발, 판

매, 서비스를 담당한다.

◇지역경제 대비…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자리 모델
GGM은 지역 경제에 반비례 영향력을 이미 입증했다.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공사 금액의 62.3%를 발주했으며 빛그린 산단에 관련 업체 입주를 유도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인원 539명 중 450명(83.5%)은 광주, 48명(8.9%)은 전남 출신으로 전체의 93.4%를 광주, 전남 인력이 차지했다.

GGM은 연 10만대 생산 기준으로 추가 채용을 통해 정규 인력 1,000여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장 설계, 건축, 생산설비 구축 등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1만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사 민정 협의로 결정된 적정 임금으로 고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

인건비 절감 등 효과가 확실해지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15일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캐스퍼.

오는 ‘리쇼어링’도 기대할 수 있다.

◇주거 등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미비 동종 업계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공동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 임금 차이를 메우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원리다.

그러나 ‘사회적 임금’ 개념의 복지는 미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1단계로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2단계로 빛그린 산단 배

후 주거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빛그린 산단에는 450여원을 들여 지역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노사 동반 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399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캠퍼스, 기업 연구관 등을 갖춘 빛그린 산학 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도 건립 중이다. /서미애 기자

한전, 전력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오늘부터 46일간…핵심 시설 1천곳 점검도

한국전력은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46일 동안 ‘전력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력분야 안전대진단은 고장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핵심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전력설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와 정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전은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345kV 변전소 4개소, 높이 5m 이상 길이 100m 이상의 대형 옹벽 1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변전소 건물 1개소, 25년 경과 200m 이상 송배전 전력구 8개소 등 14개 취약 시설이다.

한전 자체적으로는 코로나 19 방역 공사 현장(철거)과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옹벽, 정전에 민감한 업종이 입주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급변전소 등 핵심 시설 1,000여곳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전력설비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국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전력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관계자는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점검으로 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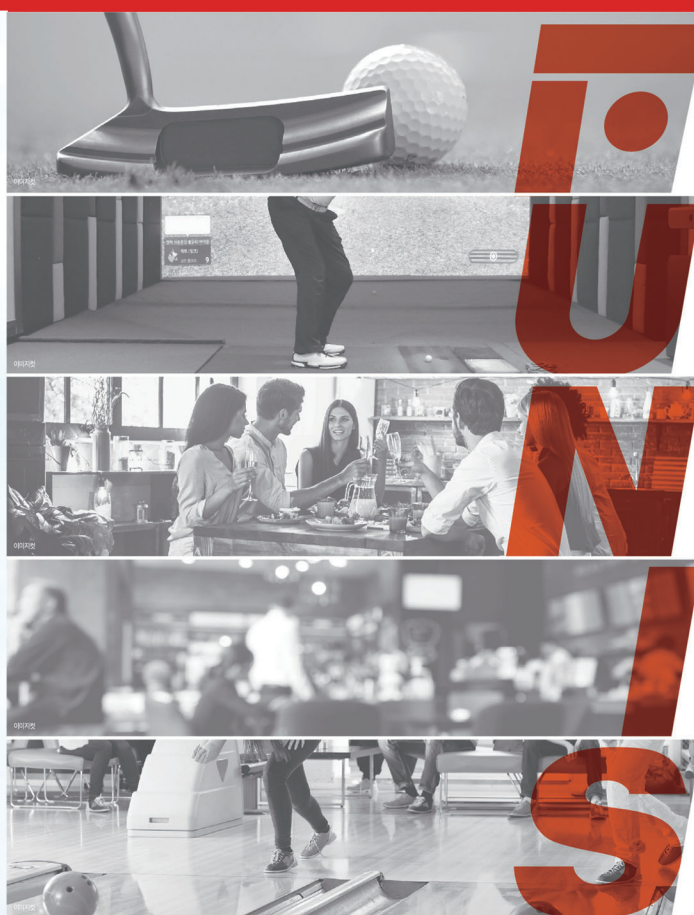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신속한 전력설비 복구체제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